

(ASEAN KOREA)

AK 강 떠나는

아세안 탐험





한-아세안센터는 2007년 제11차 한-아세안 정상 회담 시 ‘한-아세안센터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8년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 3월 출범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교역증대, 투자촉진, 관광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호간 교류와 협력관계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 한-아세안센터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AK랑 떠나는 아세안 탐험 _ 발행일 2013년 06월 _ 발행인 : 정해문 _ 발행처 : 한-아세안센터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8층)
전 화: (02)2287-1115~6 팩 스: (02)2287-1160 이메일: info@aseankorea.org http://www.aseankorea.org _ 그 림: 홍연식
ISBN 978-89-963628-0-7 07300

(비매품)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정보자료부 (02)2287-114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 아세안
우리는 친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동남아시아 지역과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적으로 ‘AK랑 떠나는 아세안 탐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7년 출범한 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뜻합니다. 인구는 약 6억 명이고, 다양한 종족과 종교가 함께 공존하며, 정부형태도 입헌군주제, 대통령중심제, 내각제 등 각각 다르지만 오는 2015년까지 하나의 ‘아세안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태평양·인도양 그리고 미주·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을 끼고 있어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동남아시아는 인도, 서남아시아, 유럽지역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를 맺은 이래 지난 20여 년간 교역량이 약 16배나 늘어, 1,311억 달러(2012년)를 기록함으로써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큰 우리의 교역파트너가 되었으며, 양 지역 간 상호 방문객도 연간 5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아세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진정한 협력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한-아세안센터’를 2009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으로 또는 이웃으로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인들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고유한 역사와 발전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이 책을 통하여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AK랑 떠나는 아세안 탐험’을 만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힘차게 자신의 꿈을 펼치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아세안 10개국으로의 신나는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3년 6월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정 해 문

목 차

04	프롤로그
07	아세안이란?
14	브루나이
18	캄보디아
22	인도네시아
26	라오스
30	말레이시아
34	미얀마
38	필리핀
42	싱가포르
46	태국
50	베트남
54	여행을 마치며
55	한국과 아세안의 국화
57	한국과 아세안의 동물
59	아하 그렇구나!
61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63	한-아세안센터 소개
64	퀴즈

한국과 아세안은 가까운 친구







아세안(ASEAN)이란?

‘아세안’은 무엇을 뜻하나요?

아세안이란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동남아지역의 평화적 협력을 위해 1967년 출범한 지역협력기구예요. 영어로는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이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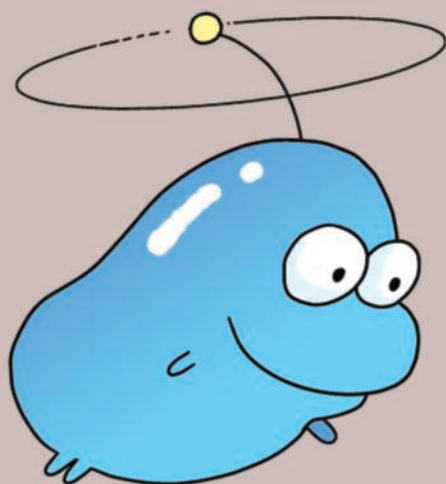
아세안의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10개국 이에요.

숫자로 본 아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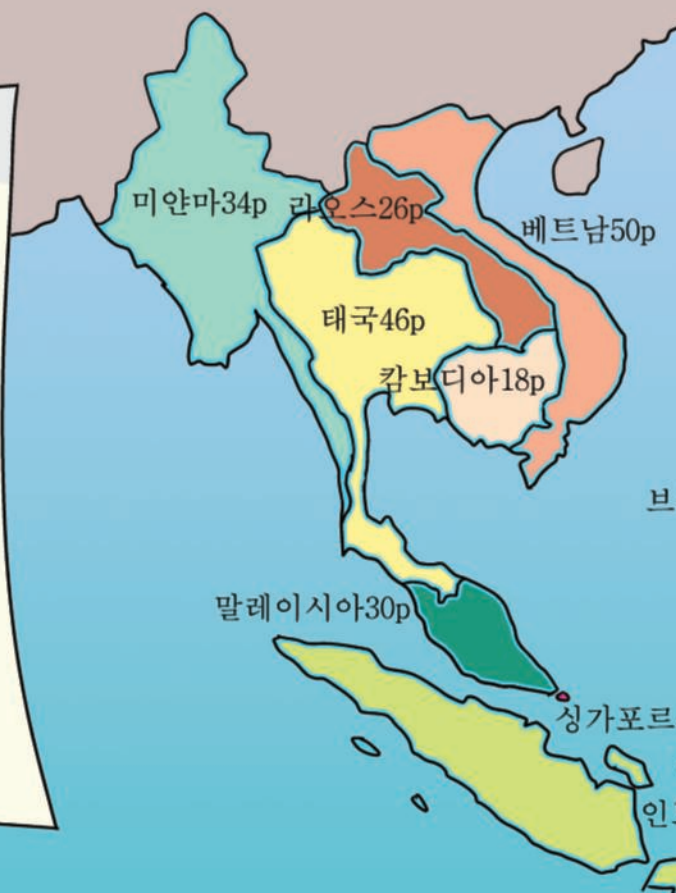
- 1967년 8월8일 출범
- 인구: 6억 명
- 면적: 4,436천km²
- GDP : 2조 3천1백억 달러(2012년)
- 총교역량 2조 4천7백억 달러(2012년)

한국에서
남쪽으로는 비행기로
4시간에서 5시간
거리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단다.



여행할 나라들 순서

브루나이.....	14p
캄보디아.....	18p
인도네시아.....	22p
라오스.....	26p
말레이시아.....	30p
미얀마.....	34p
필리핀.....	38p
싱가포르.....	42p
태국.....	46p
베트남.....	50p





우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보다
모르는 나라가
더 많다!

한국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구나!

크크

히히히
나 장난꾸러기
만두가 드디어
국제적으로
놀 때가 왔군.

필리핀 38p

타이완 42p

도네시아 22p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서남쪽에 있는데
왜 동남아라고 해?

유럽에서 보았을때 아시아
대륙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들을 통칭해서
동남아라고 해.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지.



참고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동북아시아야.

그리고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만
보고서 단순히,
동남아시아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라고
여기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대부분 천연자원이나 관광자원,
세계적인 역사유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나라들이란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찾아가 볼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야?







처음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이렇게 5개
나라가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 모여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



뒤이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더 모여 10개 나라가
함께 하게 됐지.



고도성장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지닌
아세안은 전체 인구가 6억명이고
10개 국가의 국토를 모두 합하면
전세계 국토의 3.5%가 돼.



한국도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지 24여년이 돼.
우리에게 중요한 친구인거야.

아하 그렇구나!

ASEAN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어요.
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약자로 역내 평화, 번영, 발전을
목표로 지역 국가간 협력과
공동보조를 위해 1967년 창설된
지역협력체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라인
브루나이로 떠나볼까?





브루나이 (브루나이 다루살람, Brunei Darussalam)

풍부한 자원의 혜택과 평화가 깃든 살기 좋은 나라







야하 그렇구나!

브루나이는 원유를 한국에 많이 수출해요.



한국은 자동차, 공기조절기, 화학기계류를 수출해요.





국명: 브루나이 다루살람 (Brunei Darussalam)
수도: 반다르세리베가완 (Bandar Seri Begawan)
면적: 5,270km²
위치: 보르네오섬 위쪽, 말레이시아와 이웃하고 있음
인구: 43만명
언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기타 토속어
종교: 이슬람교
화폐단위: 브루나이 달러 (Brunei Dollar)
주요수출품목: 석유, LNG, 섬유



● 말레이어 한 마디 :

"아빠가바르" (안녕하세요)

"뜨리마까지" (감사합니다)

● 국기설명

가운데의 날개는 정의와 평온, 번영, 평화를 상징하고, 초승달은 이슬람을 상징한다. 초승달 안에는 '선행을 하는 자는 영원히 신에게 복을 받고 인도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초승달 아래에는 '평화와 함께'라는 말이 아랍어로 적혀 있다. 양 손은 정부의 복지·평화·번영 추구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황색은 국왕, 백색과 흑색은 협정에 서명한 왕족을 상징한다.



주요 지역

무아라 지역

무아라는 브루나이 북동쪽 끝에 있는 도시로 주변에 볼거리가 많기로 유명하다. 코발트빛 바다로 이름난 브루나이담계 아름다운 해변이 많은데, 특히 무아라·메라강·사라사 해변의 물빛은 하늘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아름다워 바닷바람을 쐬며 산책을 하거나 해수욕과 수상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다.



오마리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제루동 파크



캄퐁 아예르 (수생마을)

벨라이트 지역

벨라이트는 서쪽에 위치하며 쿠알라 벨라이트 타운은 벨라이트의 경제와 사회의 중심지로 발전된 모습을 갖춘 지역으로 꼭 들러야할 장소이다. 또한, 열대우림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송가이 리앙 휴양공원, 맑고 깨끗한 늪이 있는 라락 휴양공원, 야영이 가능한 와사이 웅 카디르 등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더불어 휴양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많다.



벨라이트 지역



쿠알라 벨라이트 타운



라비롱 하우스

투통 지역



송가이 바송 휴양공원



티무 투통 캄퐁 세람바룬 (가장 큰 시장)

템부롱 지역



울루 템부롱 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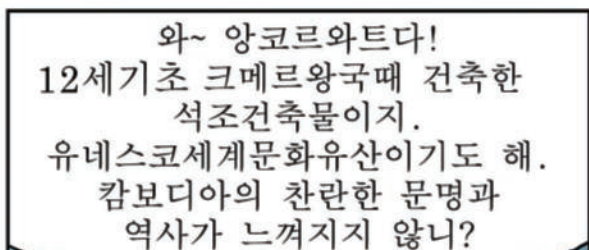


페리다얀 휴양공원



캄보디아 (캄보디아 왕국, Kingdom of Cambo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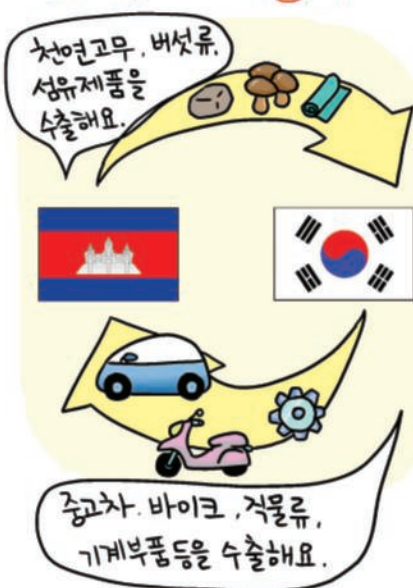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크메르문명의 후예들







야하 그렇구나!





캄보디아

CAMBODIA

국명: 캄보디아 왕국 (Kingdom of Cambodia)

수도: 프놈펜 (Phnom Penh)

면적: 176,520 km²

위치: 베트남, 태국, 라오스와 이웃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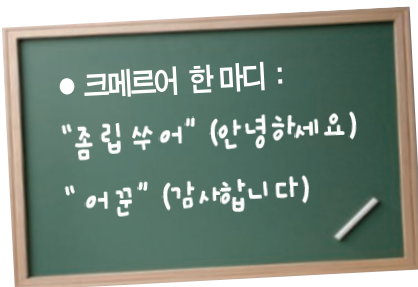
인구: 1천5백3십만명

언어: 크메르어, 불어, 영어

종교: 불교, 기타

화폐단위: 리엘 (Riel)

주요수출품목: 봉제의류, 천연고무, 목재



국기설명

가운데 흰색의 그림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 앙코르 와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찬란한 크메르 문화와 부를 나타낸다. 바탕의 적색은 불의에 대한 투쟁과 강인한 캄보디아의 정신을, 청색은 캄보디아의 농업과 환경을 상징한다.



주요지역

프놈펜

프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이며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 바삭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어 무역의 중심지였다. 택시로 30분이면 시내 한 바퀴를 다 돌아 볼 정도로 작은 도시이지만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왓 프놈



왕궁



독립기념탑

앙코르

앙코르왕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에서 790년부터 1432년까지 번영한 왕국으로 지금의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한 대제국 이었고 인구 백만의 도시를 이루며 찬란한 문명을 이룩 했었다고 전해진다.



앙코르 와트



타 프롬 사원



앙코르 톰

톤레삽 호수

톤레삽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호수로 1997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비닷물의 충격작용으로 주변 땅이 육지화 되었고, 그 중 일부가 남아 호수가 되었다. 길이가 160km이고 너비가 36km에 이르며, 우기에 접어들면 메콩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프놈펜에서 역류한 물이 유입되어 호수의 넓이가 10,000km²에 수심은 12m에 이른다



톤레삽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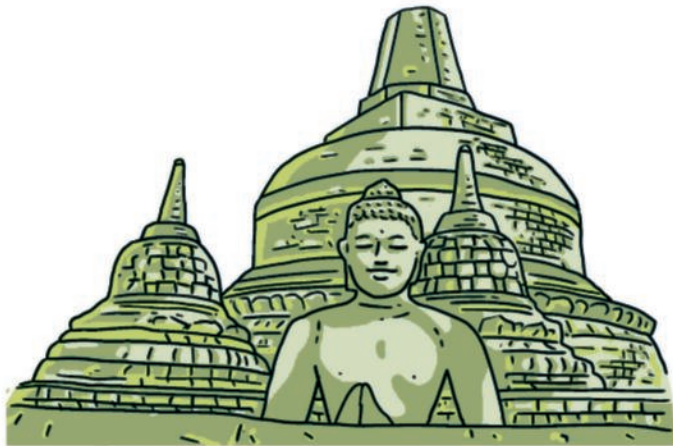


수상가옥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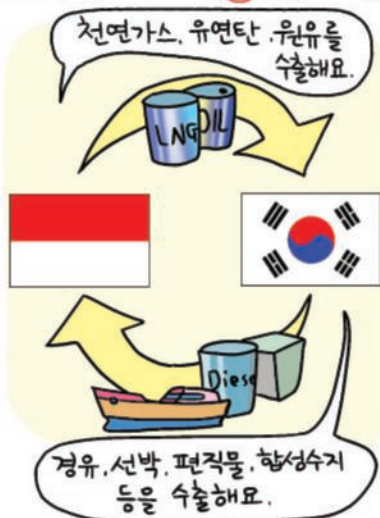
다양성 속에 조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







야하 그렇구나!



국명: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수도: 자카르타 (Jakarta)

면적: 1,811,570 km²

위치: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바다를 따라
17,000여개가 넘는 섬이 이어진 나라

인구: 2억 4천 4백 5십만 명

언어: 인도네시아어

종교: 이슬람교,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기타

화폐단위: 루피아 (Rupiah)

주요수출품목: 원유, 팜오일 / 부산물, 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



● 국기설명

인도네시아 국기는 용기를 상징하는 상부의 붉은색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하부의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13세기부터 힌두교의 여신 '비슈누'를 상징하면서 전해온 것을 1927년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창당한 국민당의 표상으로 사용했고, 對 네덜란드 독립투쟁 때 독립 인도네시아의 깃발로 쓰였다. 1945년 8월 독립 선포시 인도네시아 국기로 정식 채택되었다.



● 인도네시아어 한 마디 :

"아빠가 바르" (안녕하세요)

"뜨리마 카시" (감사합니다)

주요지역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대도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국제도시이자 비즈니스의 중심지이고 밤이면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현대식 고층 건물들과 쇼핑센터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자카르타 도심 전경



모나스 기념탑



사파리 공원

발리

'신들의 섬' 또는 '신들이 사랑한 섬' 등으로 불리는 발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신혼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자바 섬 동쪽 1,6km 지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이 자바 섬 중부산맥의 연장 부분인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발리 해변



칸타마니 화산 분화구



타나롯 해상사원

족자카르타

족자카르타(Yogyakarta)는 역사의 도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로부두르 (Borobudur) 불교사원과 프람바난 (Prambanan) 힌두사원이 있는 도시이자 인도네시아의 3대 대학교 중 한 곳인 가자마다 대학교 (Universitas Gadjah Mada)를 포함해 많은 대학들이 있어 인구 60만 명 중 40%가 학생인 대표적인 '교육 도시'이다.



보로부두르 사원



프람바난 사원



라오스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Lao PDR)

민족의 고유 원형을 간직한 아름다운 미소의 나라



라오스는 근대 이후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지만, 1975년에 사회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해서 흩어져있는 50여개의 소수민족을 단합시켜 국가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곳이 수도 비엔티안이야.
메콩 강 기슭에 위치한
작은 도시지만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단다.

와~
저 탑은
독특하게
생겼네?

아, 이것은 팻루앙이라고
라오스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기념물이야.

라오스 불교와 주권을
상징하는 불탑으로서 그 형상이
국기 문장으로도 되어있어.

사람들이 모두
순박해 보이지?

라오스의 자라는 때문지 않은
이 나라의 사람들이야.

루앙프라방으로 가보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거든.

탈랏 사오는 동대문
시장과 비슷한가 봐.
없는데 없어!

1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라오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야.



라오스 최초의 통일왕국인
란상의 수도로 지정된 이래
1563년 비엔티안으로 옮기기
전까지 800년간 문화, 종교
정치의 중심도시 역할을 했단다.



라오스를 뉴욕타임즈가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 1위로
뽑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학교도 학원도 잊고
이곳에서 딱 몇 개월만
살다가면 얼마나 좋을까.



야하 그렇구나!

동과, 동광 등을 수출해요.



화물차, 승용차, 차부품
등을 수출해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넉넉한 라오스인들의
미소가 인상적인 나라,
영원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야~ 같이 가.
그렇다고 떼놓고 가거나?

공식명칭 :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수도 : 비엔티안(Vientiane)

면적 : 230,800km²

인구 : 6백4십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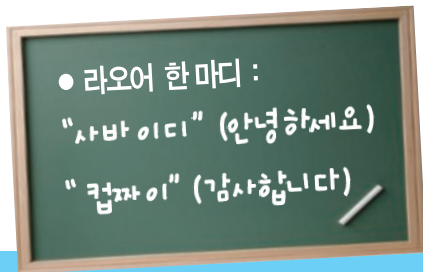
위치 :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에 둘러싸인 내륙국가

언어 : 라오어

종교 : 불교, 정령신앙

화폐단위 : 킵(kip/KN)

주요수출품목 : 목재 및 간련상품, 철광/석유, 귀금속



● 국기설명

청색은 라오스 국토의 광대함과 번영을, 적색은 라오스인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용기를, 중앙의 흰 원은 라오스인의 순수한 마음과 건강을 상징한다.



주요지역

비엔티안

메콩 강 기슭에 위치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은 작지만 매력적인 도시로(인구 약 14만)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다. 또한 라오스 중부지방의 하항(河港)으로 강을 이용한 수상교통이 발달하였고 주변지역에서 쌀을 집약채배하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의 중요한 경제 중심지가 되었다.



탓루앙 (That Luang)



시엥쿠원사원 (Xiang Khuan)



파투싸이 (Patuxai)

루앙프라방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라오스 제2의 도시이다. 남칸(Nam Khan)강과 메콩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다양한 아름다운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라오스 최초의 통일왕국 란상(Lan Xang)의 수도로 지정 된 이래 1563년 비엔티안으로 수도를 옮기기까지 800여 년간 라오스의 문화와 종교, 정치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였다.



왓 씨엥 통 (Wat Xieng Thong)



왕궁박물관 (Royal Palace Museum)



팍우 동굴 (Pak Ou Cave)

방비엔

방비엔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과 제2의 도시 루앙프라방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유명한 유적지는 없지만 산들과 마을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깨끗하고 맑은 송강을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과 소박한 인심은 여행객을 붙잡아 두기에 충분하다.



송강 (Nam Song)



파등 (Pha Deang)산



모닝마켓 (Morning Market)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Malaysia)

동서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한 나라



이곳은 유명한
페트로나스 쌍둥이빌딩이
우뚝 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 룸푸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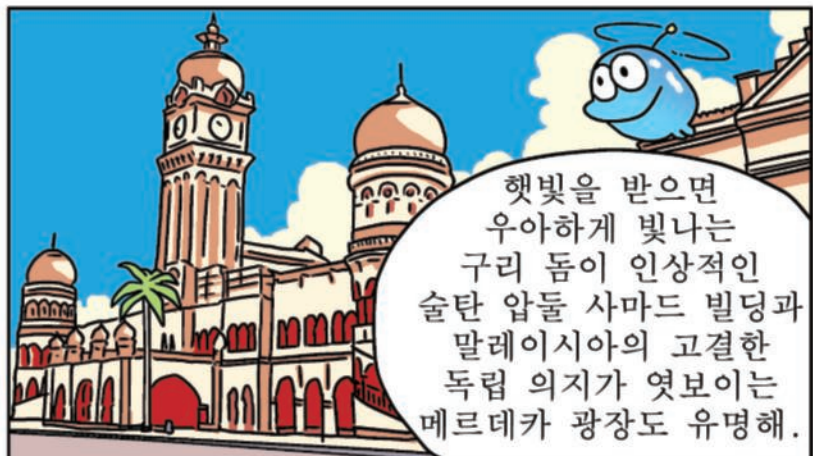
아~ 말레이시아도
힘든 시기가 있었구나.

빌딩이 쌍둥이야!

페트로나스 쌍둥이빌딩은
한쪽은 한국이, 다른
한쪽은 일본이 지어 중간에
다리를 놓아 두 개의 건물을
서로 이었어.

13세기 이후 많은 서구 열강들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다가 1957년에야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을 했단다.

우와~ 뿌듯한 걸?





야하 그렇구나!





말레이시아

MALAYSIA

국명: 말레이시아(Malaysia)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면적: 328,550 km²

위치: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섬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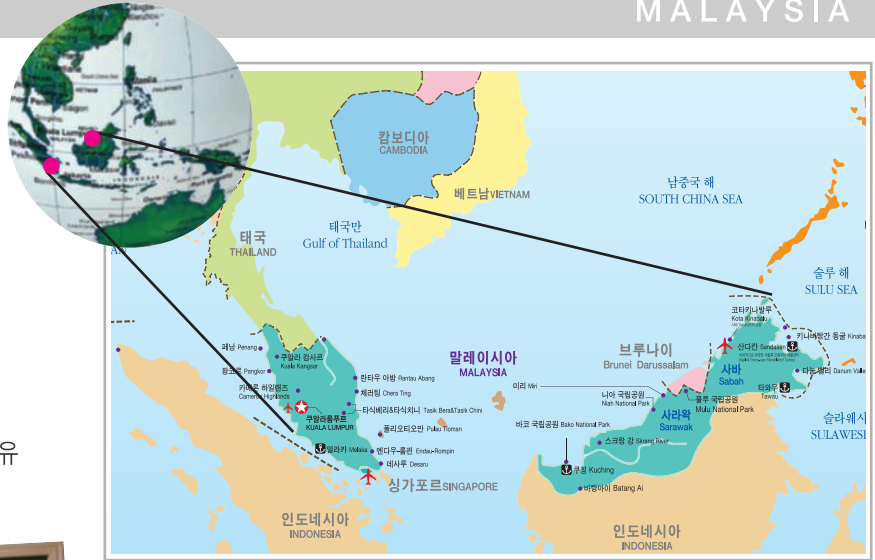
인구: 2천9백만명

언어: 말레이어, 영어

종교: 이슬람교

화폐단위: 링깃(Ringgit/RM)

주요수출품목: 전기전자제품, 팜오일, 원유



● 말레이어 한 마디 :

"아빠가바르" (안녕하세요)

"뜨리마카시" (감사합니다)

● 국기설명

말레이시아 국기는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 결성 직후 채택되었다. 14개의 적백횡선은 연방정부와 13개주가 평등한 구성원임을 나타내며, 좌측 상단의 감색은 단결을, 초승달은 이슬람교를 각각 의미한다. 14개의 섬광을 발산하는 별은 13개주와 연방정부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연방을, 별과 초승달의 황색은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각각 상징한다.



주요지역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연방의 수도로서 무역, 상업, 금융, 교통, 정보 산업, 관광의 중추이며 말레이시아의 심장 구실을 하는 도시이다. 도시 중심부에 우뚝 솟은 말레이시아의 상징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Petronas Twin Towers)는 한쪽은 한국에서 다른 한쪽은 일본에서 완공한 쌍둥이 빌딩으로 두 빌딩을 잇는 스카이 브리지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쿠알라룸푸르의 명물이다.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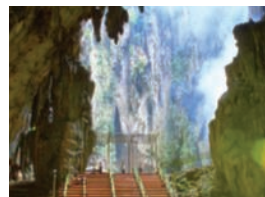
메르데카 광장

랑카위

본토인 말레이반도의 페리스(Peris) 주에서 서쪽으로 약 30km지점에 있는 9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군도이다. 페낭 섬에서 비행기로 30분, 페리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석회암 지대의 동굴, 우뚝선 바위들, 빙하기의鍾유석, 석순 및 화석 등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에 유네스코 보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텔라가 하버 파크



바투 동굴



랑카위 케이블카

페낭

말레이시아반도 북서쪽 해안에 있는 페낭은 말레이반도 폭 4.4킬로미터의 좁은 해협을 경계로 인도양 위에 있어 위에서 보면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는 섬이다. 1786년에 영국의 무역거점이 되면서부터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동양의 진주', '인도양의 에메랄드'라는 별칭답게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고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페낭 대교



조지타운



리틀 인디아



미얀마 (미얀마 연방 공화국,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찬란한 문화가 살아있는 불교국가





11~13세기까지 번성했던 바간제국의 수도였던
'바간'엔 미얀마 최고의 불교유적지며 관광지로서
불교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원과
파고다가 들어서있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선 뭐 좀 먹자!



미얀마 사람들은 주로
뭘 즐겨 먹어?

미얀마는 쌀과 카레, 각종 채소가 풍족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다양해. 특히 태국, 인도,
중국의 세 나라 음식을 섞은 듯한
퓨전요리가 발달했고 '러펫예'라는
차를 즐겨 마셔.



흐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돈다.

아하 그렇구나!

미얀마는 한국에
광물성 원료,
섬유제품, 농산물
등을 수출해요.



우리는 미얀마에
철강제품, 산업기계
적물,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지요.

야생의 정글부터 눈 덮힌 산맥,
아름다운 해변과 문화유산이 가득한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불교의 나라
미얀마는 역시 멋지지?





미얀마

MYANMAR

국명: 미얀마 연방(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수도: 내피도 (Nay Pyi Taw)

면적: 653,520 km²

위치: 태국, 라오스, 중국, 인도와 이웃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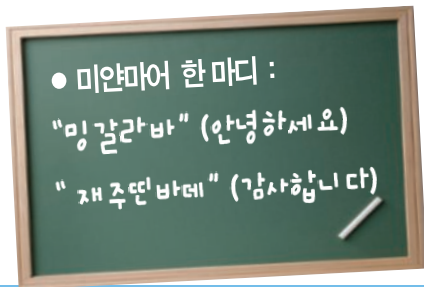
인구: 6천3백만 명

언어: 미얀마어, 일부 영어, 중국어, 태국어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토속신앙, 힌두교 등

화폐단위: 짜트 (Kyat)

주요수출품목: 천연가스, 티크(나무), 하드우드, 콩류



● 국기설명

2008년에 제정된 새로운 헌법에 의해 2010년 10월부터 미얀마 국기는 결속, 평화, 용기를 각각 상징하는 노랑, 녹색, 빨강 삼색 바탕 위에, 연방의 의미를 강조하는 큰 별 하나가 중앙에 들어가는 문양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지역

양곤

미얀마의 관문이자 최대도시인 양곤은 '전쟁의 종식'이란 뜻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그들이 우거진 공원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동방의 정원도시'로도 알려져 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인구 500만의 거대 도시이다. 시내 중심가를 제외하면 높은 건물이 없어 멀리서 보면 도시전체가 마치 숲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셰다곤 파고다



술레 파고다



칸다지 호수

바간

세계 3대 불교유적지인 '탑의 나라' 바간은 멸망한 바간 왕조의 수도였다. 화려했던 왕조 시대의 파고다는 숲을 이루었고 강력한 왕들은 미얀마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퇴색되고 무너져 내린 2,500여개 탑의 숲에서 화려한 문화와 건축 예술을 자랑했던 옛 왕조의 영화를 간직하고 있다.



바간



셰지곤 파고다

만달레이

마지막 왕조인 콩바웅(Kongbaung) 왕조의 수도였던 만달레이는 미얀마 제2의 도시이며,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다. 국토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각 지역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지역특산물들이 풍부하며, 여러 왕조들이 주변지역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였기 때문에 과거 미얀마의 영화를 보여주는 수많은 유적들이 있다. 특히, 민돈(Mindon)왕이 건립한 만달레이 왕궁과 아름다운 구도도 사원 등이 유명하다



구도도 파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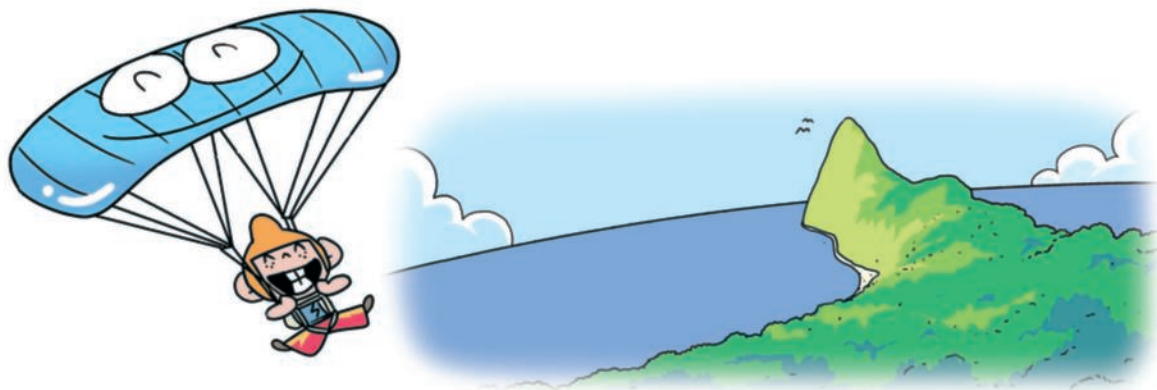


만달레이 힐



필리핀 (필리핀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즐거움과 모험이 가득한 축제의 나라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바나우에 마을의 계단식 논이야.

총 길이가 22,400km로
지구 반 바퀴를 돌고
남을 정도고, 2,000년
전부터 경작되어온 거래.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섬나라 필리핀에 왔으니
세계 3대 해변으로 꼽힌
보라카이를 안 보고 갈 수
없지!

보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색과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들..

이곳은 세부.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스페인문화와 현대문명이
공존하는 곳으로 남부의
여왕도시답게 여러나라의
관광객이 오는 곳이야.

야호~
여기가 막내이모가
신혼여행 왔던
보라카이구나!



야하 그렇구나!





필리핀

PHILIPPINES

국명: 필리핀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수도: 마닐라 (Manila)

면적: 298,170 km²

위치: 한국에서 비행기로 4시간, 아시아 대륙의 남동쪽

인구: 9천7백7십만 명

언어: 영어, 타갈로그어

종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불교 및 기타

화폐단위: 페소 (Peso)

주요수출품목: 반도체 등 전자부품/제품, 의류, 동니켈



● 국기설명

현재의 국기는 1897년 필리핀의 독립영웅 Emilio Aguinaldo 장군이 도안한 것으로, 1898년 6월 12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 시 처음으로 게양하였다. 흰색은 평등과 우애, 파란색은 평화·진실·정의, 그리고 빨간색은 애국심과 용맹을 각각 상징한다. 삼각형 안의 노란 태양은 자유를 뜻하며, 태양의 여덟 갈래의 빛은 스페인의 계엄령에 최초로 대항한 8개의 주를, 세 개의 별은 필리핀의 커다란 세 지역인 Luzon, Visayas, Mindanao를 의미한다.



● 타갈로그어 한마디 :

"마간당 우마가" (안녕하세요)

"살라맛" (감사합니다)

주요지역

마닐라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는 필리핀 최대의 섬 루손에 있는 필리핀의 수도로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도시이며 필리핀 7,107섬을 아우르는 행정, 경제, 상업,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거리의 화려한 지프니와 덜컹거리는 버스 그리고 세련된 유선형의 자동차처럼 오랜 전통과 현대의 매력이 뒤섞여 살아숨쉬는 매력적인 도시다.



메트로 마닐라



성 아구스틴 성당



계단식 논

세부

세부는 마닐라 남쪽에서 587Km 떨어진 비사야스(Visayas) 중앙에 있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1521년에 마젤란이 필리핀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서 서방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스페인 식민시대의 문화와 현대문명이 공존하는 곳으로 필리핀 남부의 상업중심지로서 남부의 여왕도시로 불리며 세계 도처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여행지이다.



세부전경



도교사원



산 페드로 요새

보라카이

보라카이는 남북으로 7km, 동서로 1.2km 되는 작은 섬으로 필리핀어로 '바람의 벽'을 뜻한다. 세계 3대 해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보라카이는 에메랄드빛의 바다와 산호거루로 만들어진 해변이 특징이며, 1996년 세계비치대회에서 1등을 했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박쥐 동굴



화이트 비치



싱가포르 (싱가포르 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동서양의 모습이 조화롭게 녹아든 경제, 금융의 중심지



싱가포르는 서울의 1.1배
정도 되는 국토에
500만 여명이 살고 있는
도시국가야.

되게 작네?



작지만 지리적으로 동남아의
요충지라는 이점을 활용해
교통, 통신의 중개지 역할과
무역, 금융,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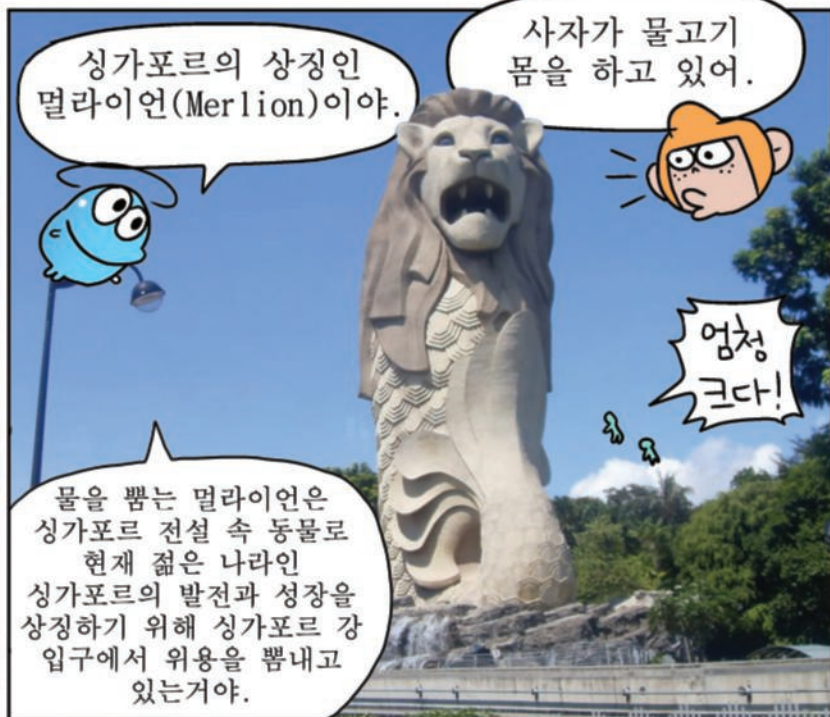


알아보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의 도시래.

예로부터 말레이 반도 끝에 있어서
중국, 인도, 아라비아, 포르투갈의
무역선, 전투함, 범선들이 드나들었어.
그래서 사자의 도시 라는 뜻의
'싱가푸라' 라고 불리웠지.

말레이족 뿐 아니라
인도, 중국 등 다양한
문화, 인종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로 소개되어 있네?!







야하 그렇구나!

한국에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을
수출해요.



한국은 싱가포르에
석유제품,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등을
수출해요.





싱가포르

SINGAPORE

국명: 싱가포르 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수도: 싱가포르 (Singapore)

면적: 700 km²

위치: 말레이반도 맨 끝에 위치

인구: 5백4십만 명

언어: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종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화폐단위: 싱가포르 달러 (Singapore Dollar)

주요수출품목: 전자제품, 광물원료



● 중국어 한 마디 :

"니 하 오" (안녕하세요)

"씨어씨어" (감사합니다)

● 국기설명

싱가포르의 국기는 독립 이전인 1959년 11월 싱가포르 자치주의 주기로, 독립 이후에도 그대로 국기로 사용하고 있다. 상반부의 적색은 동포애와 인류애를 상징하고, 하반부의 백색은 순결과 미덕을 상징한다. 5개의 별은 민주, 평화, 진보, 평등, 공정의 5대 이상을 뜻하며, 초승달은 이러한 이상을 향해 전진하는 신생 싱가포르를 의미한다.



주요지역

남동부지역



아랍스트리트



차이나타운



창이빌리지



주첸거리

중부지역



홀랜드 마을



마리나 시티파크 케이블카



마리나 시티파크



센토사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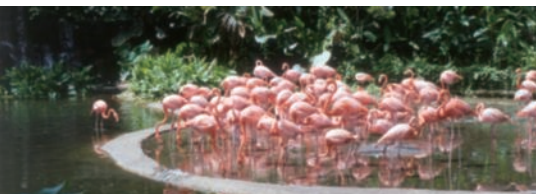
북서부지역



나이트사파리



부킷티마 자연보호지역



주룽 새공원



태국 (타이 왕국, Kingdom of Thailand)

고대 왕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자유의 땅







아하 그렇구나!





태국

THAILAND

국명: 타이 왕국 (Kingdom of Thailand)

수도: 방콕 (Bangkok)

면적: 510,890 km²

위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와
이웃하고 있음

인구: 6천4백5십만 명

언어: 타이어

종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기타

화폐단위: 바트 (Baht)

주요수출품목: 자동차차처리기계/부품,
자동차, 부품/악세서리



● 국기설명

태국의 국기는 트라이롱(Tri-Rong)기로, 청색, 흰색, 적색으로 구성되며, 중앙의 청색은 국가원수인 국왕을, 흰색은 불교를, 적색은 국민의 피를 상징 태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왕, 불교, 국민을 표현하며 불교를 정신적비탕으로 하여 국민의 피로써 국왕을 수호하는 의미
1917년 현 짜끄리 왕조의 6대 왕인 라마 6세 때부터 태국 국기로 사용



● 타이어 한 마디 :

"사오삐디 캅(카)" (안녕하세요)

"캅쿤캅(까)" (감사합니다)

주요지역

방콕

태국의 수도이자 관문이 되는 도시로서 산업, 문화, 정치, 외교의 중심지이다. 1782년 차크리 왕조의 초대왕인 라마1세에 의해 수도로 정해진 뒤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발돋움 했다.



왕궁



방콕 시가지

푸켓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800여 km 떨어진 곳으로 인도양에 접해있는 섬이다. 면적은 500km²에 달하며, 섬의 남쪽과 서쪽으로는 안다만 해협이 있고 동쪽으로는 크라비(Krabi)해와 접하고 있다. 660m 길이의 사라신(Sarasin) 다리로 본토와 연결된다. 푸켓 섬은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해안선과 석회암 절벽, 숲이 우거진 언덕이 있으며 주변에는 32개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어 관광 휴양지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곳이다.



푸켓 전경



본드 섬

치앙마이

태국 제2의 도시로 일명 '북방의 장미'라 불리우는 보석과도 같은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과거 란나 왕국의 수도답게 곳곳에 풍부한 역사 유적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화려한 축제와 뛰어난 수공예품으로도 유명하다.



송크란



백색사원



베트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풍부한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베트남은 북으로 중국,
서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접해 있어.
국토는 최북단과 최남단의
길이가 무려 1,750km라서
남부와 북부의
기후가 상당히 달라.

유교와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문화가 형성되어있는 베트남은
'배우고 본 따서 좋은 옷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습합사상이 발달했단다.

중국의 옷을 입고
일본의 음식을 먹으며
프랑스식 빌라에 살아도
여전히 베트남인!

저거 씨클로지?
영화에서 봤어.

오토바이도
정말 많다.

우와~
길다!

‘도이 모이(쇄신)’ 경제 개방 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두며 관광산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이야.

야하 그렇구나!

베트남은 한국에
광물성원료,
수산물, 섬유제품
등을 수출합니다.



베트남에
광물성원료, 직물,
철강제품 등을
수출해요.

세계의 기업들이여
베트남으로 오세요~!!

하노이에는 구시가지와 600개 이상의 탑과
사원 등 많은 문화유산이 보전되고 있어.

베트남 최초대학인
문묘입구야.

이야아~
1070년에
세워졌다고?

와~
아오자이다!!

썬 짜오~!!
(안녕하세요~)

난 세계의 전통의상 중에서
아오자이가 제일 이쁘더라~.
흰색 아오자이는 학생들
교복이래.

바탕이 예뻐야 아오자이도
어울릴텐데..호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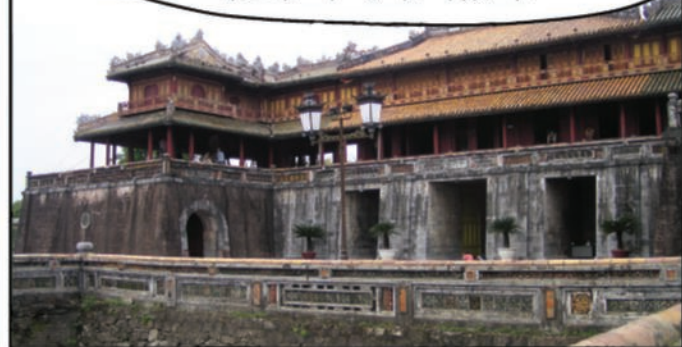
너 말 다했니?

재들은 놔두고
우리끼리 가자.



이곳은 베트남을 통일시켜
국민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호치민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은 베트남 제2의 도시
호치민시.

베트남 마지막 왕조, 응우웬왕조의
수도였던 '후에'는 호치민 혁명정부가
수립되는 1945년까지 140여년 동안
베트남의 중심지였어.



베트남도 한국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전쟁을 치른 아픈
역사가 있어.

그래도
1975년
통일됐잖아.

베트남이 마지막 여행지인데
좀 쉬었다 가면 안될까나?

베트남 쌀국수도 먹어야
하는데 지체할 시간이 어딴어?

치사하게 혼자
먹을거니?

호치민

버럭

전통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배우들이 물 속에서 인형을
조종하며 공연하는 수상 인형극은
베트남에서만 볼수 있는 공연이야.



신기해. 어떻게 물 속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인형을
움직이는 거야?

빠르게 변하고 있는
베트남. 역동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매력적인 나라라
벌써 떠나는데 아쉽다. 그치?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도: 하노이 (Hanoi)

면적: 310,070km²

위치: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이웃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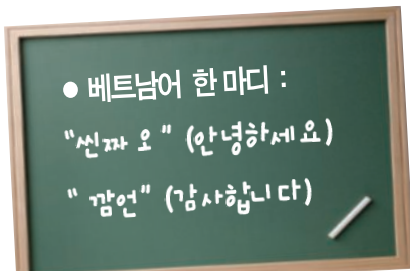
인구: 9천4십만 명

언어: 베트남어

종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

화폐단위: 동 (Dong)

주요수출품목: 섬유/직물제품, 원유



● 국기설명

1945년 9월 29일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독립 당시 처음 제작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후인 1955년 11월 30일, 이전 기의 모양에서 별의 각을 더욱 날카롭게 수정하여 북베트남의 국기로 제정, 그후 1976년 베트남 통일 때 통일국가의 국기로 지정, 배경의 빨간색은 혁명의 피와 조국의 정신을 의미하며, 금색 별의 다섯 모서리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의 단결을 상징.



주요지역

하노이

수천 년간의 역사적 풍광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에는 구 시가지와 600개 이상의 탑과 사원 등 많은 문화유산들이 보존되어 있다. 때문에 고탑(古塔)의 도시로도 불린다.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는 1049년에 세워진 일주사, 1070년 건립된 문묘(Temple of Literature), 하노이 요새, 오페라하우스, 호치민 묘소 등이 있으며, 호안끼엠 호수 와 서호를 비롯하여 19개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



일주사



호안끼엠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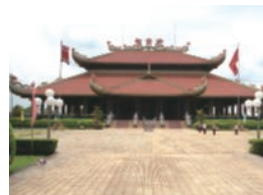
문묘

호치민

호치민시는 베트남 제2의 도시로서 상업, 과학, 기술, 공업 등의 중심지이다. 서울의 약 3배에 달하는 2,056km²의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발 10m 내외의 낮은 평야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과 북쪽은 운하로, 동쪽은 사이공강으로 둘러싸여 아름답고 외적을 방어하기 좋은 천혜의 요새이다. 수도인 하노이에서 1,738km 떨어져 있고 사이공, 출롱, 탄빈, 구찌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최근의 개방정책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기가 넘치고 있다.



인민위원회청사



벤두옥 사원



출롱 사원

하롱베이

하롱베이는 하노이에서 180km 떨어진 광남성에 있다.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통강만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중국에, 서쪽과 남서쪽으로는 깎바섬에 이르며 120km에 이르는 해안선이 있다. 넓이는 약 1,500km²로서 그 일대에 크고 작은 3천여 개의 섬들이 산재해있다.



하롱베이



하롱베이

지금까지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를 돌아본 소감이
어때?



솔직히 난 동남아국가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 바깥은 관심
없었는데 이젠
흥미가 생겼어.

나도~!



그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지,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들이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DYNAMIC
KOREA



우리나라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해서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이 되었잖아~!

찬란한 문화유적,
역동적 경제발전까지...
우리와 닮은 점도
많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아세안을
알게된 게 뿌듯해!



그리고보니
동남아시아는 우리보다
남쪽에 있어서 그랬나..
겨울이 없었던 것 같아!



하하하하~
그걸 이제 알았냐?

* 한국과 아세안의 국화 *



브루나이

브루나이의 국화는 심포르(Simpor)라고 불리는 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딜레니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1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이 꽃은 브루나이 전통 수공예품에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왕국의 국화는 연꽃의 한 종류인 흰색과 노란색의 룸둘(Rumdul) 꽃입니다. 고대부터 캄보디아 여인들은 그 향기 덕분에 룸둘에 자주 비유되었는데, 룸둘의 매혹적인 향기는 오후가 되면 더욱 짙어져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 나갑니다.



인도네시아

문 오키드(Moon Orchid)는 인도네시아의 3개 국화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개의 국화는 자스민(Jasminum sambac)과 라플레시아(Rafflesia arnoldii)입니다. 문 오키드는 가장 오래 꽃을 피우는 난초 중 하나이며 그 향은 2개월부터 6개월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라오스

독참파(Dok Champa)는 라오스의 국화이자 상징입니다. 독참파 꽃은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등 여러가지 색으로 피어나며 신실함과 삶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라오스에서 독참파는 각종 의식 때 사용되고 때로는 독참파로 화관을 만들어 손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꽃잎이 다섯개인 붕아라야(Bunga raya)는 무궁화의 한 종류로 1960년에 말레이시아의 국화로 지정되었습니다. 붕아라야의 5개의 꽃잎은 말레이시아의 국가지도이념 5대 원칙과도 잘 부합되며 빨간색은 용기를 상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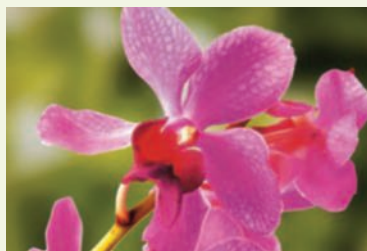
미얀마

패덕(Paduak)은 미얀마의 국화입니다. 미얀마의 신년인 4월에 노란색 꽃을 피우며 꽃이 피기 시작하면 나무도 금빛으로 함께 변한다고 합니다. 패덕은 미얀마 전국에서 볼 수 있으며 나무는 가구를 만들 때 애용됩니다.



필리핀

자스민의 한 종류인 삼파귀타(Sampaguita Jasmine)는 1934년에 필리핀의 국화로 선정되었으며 삼파귀타는 별 모양의 하얀 꽃을 피웁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순수함, 소박함, 겸손함, 강인함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삼파귀타는 필리핀 전설, 민담, 음악 등에도 등장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난초이자 싱가포르의 국화인 반다 미스 조아킴(Vanda Miss Joaquim)은 교배종이며 난초를 발견한 아그네스 조아킴(Agnes Joaquim)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1981년에 40개가 넘는 경쟁작들을 물리치고 국화로 선정된 반다 미스 조아킴은 싱가포르에서 흔히 재배되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태국

노란색 꽃을 방울방울 피우는 라차프룩(Ratchaphruek)은 태국의 국화입니다. 태국인들에게 라차프룩은 불교와 영광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라차프룩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피고 태국인들의 화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트남

새벽의 꽃이라고도 알려진 연꽃(Lotus)은 베트남의 국화입니다. 베트남인에게 연꽃은 순수, 헌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합니다. 연꽃의 우아함은 베트남 민요나 시에도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국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無窮花, rose of sharon)는 목근화(木槿花)라고도 부릅니다. 무궁화는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는 의미이며 국화로서의 표준 색상은 흰색입니다. 우리나라를 옛부터 무궁화 삼천리라 한 것으로 보아 선인들도 무궁화를 몹시 사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과 아세안의 동물 *



브루나이 - 공작



캄보디아 - 쿠프레이



인도네시아 - 코모도



라오스 - 코끼리



말레이시아 - 호랑이





미얀마 - 호랑이



필리핀 - 물소



싱가포르 - 사자



태국 - 코끼리



베트남 - 물소



한국 - 호랑이

야하 그렇구나!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어떨까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파트너 이에요.

아세안은 한국의 2번째로 큰 교역 상대지역입니다. 아세안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원유, 가스, 석탄, 팜 오일, 주석, 펄프, 커피 등을 아세안 국가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반대로 한국은 아세안에 반도체, 휴대폰, 철강, 선박을 주로 수출하고 있어요 2009년에는 한-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FTA)이 전면 발효되어 한국과 아세안간의 교역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어요.

🕒 한국과 아세안은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친구랍니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어요. 청소년 및 언론인 교류 등 인적교류와 공연예술 축제, 전시회 개최 등 문화 교류 등을 통하여 언어와 풍습이 다른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아세안 간의 대중문화 교류도 많아져서, 아세안에서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정도랍니다. 아름다운 천연 관광자원이 많은 아세안 국가로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도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2012년 한 해 동안 아세안 회원국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과 한국에 온 아세안 방문객이 모두 5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아세안센터가 주관하는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

한국과 아세안은 대화상대국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2009.6.1-2 제주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계속 관계를 긴밀히 해왔어요. 대화상대국이란 서로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2009년은 한-아세안 양측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20주년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같은 해 6월 제주도에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초청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기위하여 '한-아세안센터'가 3월에 출범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 증진을 더욱 활기차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 한-아세안 관계

-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지역(2012) : 1,311억달러 (수출 791억달러, 수입 520억달러)
 - 중국에 이어 2위
-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건설 수주시장(2012) : 110억달러
 - 중동에 이어 2 번째 건설수주
- 한국과 아세안 간의 인적교류(2012): 상호 방문 약 570만 명 이상



한-아세안센터에 대해 알아보까요?



한-아세안센터 설립

2007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는 한-아세안센터를 설립하기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어요. 이에 따라 2009년 3월 13일 서울에서 정부간 국제기구 '한-아세안센터'가 출범 되었어요.

설립 목적은?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 간 무역과 투자를 활발히 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또 문화교류와 관광을 활성화 하여 서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요.

한-아세안센터 회원국은?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모두 합하여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아세안센터 찾아오는 길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내(8층)에 있어요.
지하철로는 1호선 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2-3분내 한-아세안센터에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 이웃 아세안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OX 퀴즈

브루나이

- 캄퐁 아예르는 세계 최대의 고산지대마을이다.
- 브루나이는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우는 울루템부롱 자연공원이 있다.
- 브루나이는 왕이 통치하는 입헌군주제이다.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 수도는 시엠립이다.
- 캄보디아 시엠립의 유명한 관광지는 앙코르와트이다.
- 캄보디아 국기는 총 3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발리이다.
- 세계문화유산인 보로부두르 사원은 힌두교 사원이다.
- 인도네시아엔 약 17,0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진 섬의 나라이다.

라오스

- 라오스 국토를 관통하여 흐르는 강은 양쯔강이다.
- 라오스의 수도는 루앙프라방이다.
- 먼 옛날 라오스 북부지역에 번성했던 국가는 란상왕국이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에선 물건을 건넬때 반드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이다.
-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키나발루 산은 동남아 최고봉이다.

미얀마

- 미얀마의 인사말은 밍갈라바이다.
- 미얀마사람들은 음력설에 서로에게 쿡을 던진다.
- 양곤엔 미얀마 불탑의 대표 걸작품 쉐다곤 파고다가 있다.

필리핀

- 필리핀은 한국전에 참전한 우방이다.
- 바네우에 바타드 마을의 계단식 논을 모두 이어 붙이면 22,400km로 지구 반 바퀴를 돌고도 남는 길이다.
- 필리핀 전통옷 바롱 따갈로그는 파인애플, 바나나잎으로 만든다.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사자의 도움”이라는 뜻의 싱가포르에서 유래되었다.
- ‘센토사’는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을 의미한다.
- 멀라이언은 상반신 사자, 하반신 물고기인 상상의 동물이다.

태국

- 태국의 수도는 푸켓이다.
- 태국 국왕의 생일엔, 모든 국민이 이날을 기념해 노란 옷을 입는다.
- 고대 번성했던 태국 왕국의 이름은 시암(Siam)이다.

베트남

- ‘호아저씨’는 전 국가주석 호치민의 애칭이다.
- 베트남의 수도는 호치민이다.
- 베트남 학생들의 교복은 화려한 색의 아오자이이다.

아세안

- 아세안은 2015년 까지 하나의 ‘아세안 공동체’가 된다.
- 아세안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다.

(0) (0) 000000
(000000 X) (000000 X) (000000 X)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X) (000000 X) 000000
(0) (0) (0) 000000
(0) (0) (0) 000000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X) (0) (0) 000000
(0) (0) (0) (000000 000000 X) (000000 X) 000000
(0) (000000 000000 X) (000000 X) 000000
(0) (000000 000000 X) (000000 X) 000000
(0) (000000 X) (000000 X) 000000
(0) (000000 X) (000000 X) 000000
(0) (000000 X) (000000 X) 000000



i 000000